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쉬운 삶에 돌아보다-김금조처9호와 나



성종대_ 성균관대 경제학과 76학번, 국회의원 이철 보좌관, 국회의원 노무현 보좌관, 청주방송 경영기획이사, (사)과학사랑나라사랑 사무총장(현)

나의 소중한 친구인 김형에게!

참으로 오랜만에 김형에게 편지라는 걸 쓰는 것 같네. 가끔씩 전화 연락을 통해 안부 주고 받거나 아니면 그런저런 자리에서 만나거나 우연히 마주쳐 소주 한 잔 같이 나누며 세상사를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이렇듯 글로 소식을 나누기는 정말 수년 만인 것 같으니.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연말연시가 되면 인쇄물로 된 연하장 같은 거라도 주고받았으니, 저기에다 몇 자씩 안부를 적어보내기도 했으니, 일 년에 두어 번 정도는 글이 오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나마 전자우편이라는 첨단형식을 빌려 대신하고 보니 정말 서로의 글씨조차 알아볼 수 없을 형편이 되고 말았네 그려.

그러다보니 오늘밤 이처럼 편지를 써보아야겠다고 작정하고 나서 자연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네. 좀 생경스럽기도 하고, 솔직히는 쑥스러운 기분도 들었다네. 하지만 기왕 이렇게 시작한 일이니 한번 용기를 내어 보기로 함세.

김형!

나나 김형도 이제는 나이가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50줄에 막 진입하고 말았네. 지난 삶을 굳이 돌이켜보지 않더라도 별반 해놓은 일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나이가 쉬이러니 사실 실감이 나지는 않는다네.

김형은 어떤가?(자꾸 '형'이라는 호칭을 붙이니 괜히 서먹해지는 것 같아 그냥 편하게 '자네'라는 말로 대신 하겠네) 나이 쉬이라는 게 제대로 느껴지나? 하기가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그리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경조사를 챙기다 보면 그런 연배가 되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곤 하기는 한다네. 내 주변에서도 벌써 친구의 아들, 딸 결혼 청첩을 받는 경우가 대역섯 번 이상이나 되고 보니 이제 우리도 하루의 해가 그 뜨거움이 한풀 꺾인 채 서산을 향해가는 오후 3시를 넘긴, 그런 지경이 아닌가 싶으니.

자네도 그렇지 않은가? 참 자네 큰애인 딸아이도 올해 대학 졸업반이지 아마? 국문학을 전공한다고 했던가? 장차의 진로 때문에 그 아이도 고민이 많겠군. 작년 연말 어느 송년 모임에서 자네한테 얼핏 들었을 때, 그 아이가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하겠다고 했었지? 시나 소설 등 작품을 하기보다는 평론 쪽으로 방향을 잡아 이론공부를 더해보겠다는 그 친구의 의지를 자네는 그냥 두고 보겠노라고 했었지? 우리까지 나서서 걱정할 일은 아니긴 하지만 학계에서 들리는 말에 따르면 '인문학의 위기' 운운하는 소리가 심심치 않던데, 이런 상황에서 진지함을 잃지 않으려는 그 아이의 의욕이 어찌면 대견하기도 하지 않나?

이런 내가 뭐하고 있는 건가? 너무 서두에서 길을 잃고 말이 너절해졌네. 제대로 안부인사는 꺼내지도 못하고 있으니 미안하게 됐네.

자네 요즘 사업은 어떤가? 자네가 그 사업에 매달린 지도 그럭저럭 십칠팔 년 되었지 아마? 군복무를 마치고 유명전자회사에 어렵게 취직하여 몇 해를 버티던 자네가 돌연 어느 날 술자리에서 친구들을 향해 퇴직을 선언하고 독립된 사업체를 꾸린다고 했을 때 모여 있던 우리 모두는 진담반 농담반으로 들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두어 달 만에 자네는 조출한 창업행사를 가진다고 우리에게 연락했었지.

당시로서는 아직 우리 모두에게 생소했던 컴퓨터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그 신종사업에 뛰어들어 자네에게 친구들인 우리는 말로만 격려를 했을 뿐 무엇 하나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

하는 ‘비전문가’ 입을 자탄하고 자금이러도 좀 보태지 못하는 ‘능력 없음’에 허탈해 하였었네. 그로부터 자네는 회사원으로 근무하던 때보다는 훨씬 의욕적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수년에 한번씩 사무실 규모를 조금씩 넓히며 우리들에게 이전 신고를 할 때마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곤 했지. 물론 어떤 사업체를 꾸려나가더라도 그렇겠지만 자네 역시 간혹 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고 그럴 때면 술자리에서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저 자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으로 소임을 다했을 뿐 여전히 자네에게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지는 못해 안타깝기만 했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네는 사업가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무척이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네가 관리 운영하는 사업체도 비록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 웬만한 풍랑에는 흔들리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었다네. 그렇게 이어온 지 벌써 20년을 향해 가니 자네의 노력과 능력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

자네가 하고 있는 정보통신분야는 문외한인 우리가 알기에도 워낙이 변화 속도가 빠르고 기민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항시 자네가 더 집중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요즘도 잘 꾸려나가고 있으리라 믿네.

친구!

한번 글을 시작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막상 말을 꺼내고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지는지 모르겠네.

실상 오늘 자네에게 편지글을 적게 된 것은, 미안하지만 자네에게 간단히 안부를 물은 다음에 ‘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던 의도에서 출발했다네. 그렇다고 뭐 인생을 돌아본다는 식의 거창한 얘기도 아니고, 삶의 우여곡절에 대한 넋두리는 더더구나 아니라네. 그저 지난 시절 가운데 미처 다 털어 내놓지 못한 삶의 어느 한 고비에서 있었던 일을 자네에게 변사가 무성영화 해설하듯 해보고 싶다는 욕구를 불현듯 느꼈기 때문이라네.

그 ‘삶의 어느 한 고비’가 언제였냐고? 서로가 빈번하게 만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정사의 중요사항들은 알고 지낼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돈독한 사이인 우리 사이에 특별히 감춰 놓은 ‘비밀 이야기’가 있냐고 묻고 싶을 걸세. 결론부터 말하자면 분명 그런 것도 아니라네. 자네도 익히 알고 있는 나의 삶의 한 부분이지. 뭐냐고? 하 하 너무 기대하지 말게. 그건 바

로 지난 1976년부터 시작된 나의 대학 시절 일부와 2학년 그러니까 77년 긴급조치9호 위반이라는 명분 하에 감옥생활을 했던 이야기라네. 당시도 그랬거니와 그 후에도 간혹 자네와 그때의 일에 대해 말할 기회가 종종 있었고 나의 ‘구라(?)’에 자네가 흥겨워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기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닐 걸세.

그런데 그 이야기를 식상해 하지도 않고 또 꺼내는 거냐고 되물을지도 모르겠네. 그런 비난을 받아도 당연하지. 하지만 나대로 좀 돌이켜보고 싶다네. 그저 자네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하네.

내가 대학에 들어간 해가 1976년이었어. 향도 부산 출신으로 고교를 그 전해 졸업하고 대학입시에서 실패한 나는 서울의 그 유명한 학원기였던 ‘광화문통’에서 재수를 했지. 내가 이른바 ‘광화문통’ 아이들 중 하나였을 때 자네는 순조롭게 대학에 입학하여 화학을 전공하는 어엿한 대학생이었고 말이야. 그런데 재수시절 그때의 한 에피소드를 들쳐보면 묘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해. 이듬해 대학 1학년에 입학한 이후 난 너무도 쉽게 언필칭 ‘운동권세계’라는 데 진입하게 되는데, 그 단초가 벌써 재수시절부터 싹트고 있었다는 점이야.

여기서 자네에게 한 가지 미리 꼭 부탁하고 싶은 점이 있다네. 그건 부디 오해를 말아달라는 점이야. 내가 지금부터 자네에게 말할 여러 가지 일들 혹은 나의 심경, 그리고 언행 등등은 전적으로 나에게 국한된 이야기일 뿐 이 땅의 수많은 ‘운동가’들의 보편적인 행동양식이나 사고양태가 아니라는 점이야. 다시 말하면 거창하게 내가 혼자서 ‘운동권’ 혹은 ‘운동가’를 대표한다거나 준거틀이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일세. 그러니 내가 ‘이러저러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에 한정해서 자네가 이해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네. 물론 시대적 제반 상황을 이야기 하다보면 나의 개별적 경험이 곧 당시의 일반적 형태나 상황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네는 너무 확대해석을 하지 말아 달라는 청을 먼저 하고 싶다네.

아까 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갑세. 자네도 겪었다시피 내가 재수하던 당시, 그러니까 자네의 대학 신입생 시절인 1975년에는 우리 언론사에 중요한 한 사건이 일어났던 때였어. 이른바 ‘동아일보 광고탄압사건’이라는 세계언론사에 보기 드문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지. 굳이 자세하게 말 안해도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백지광고’ ‘격려광고’ 등등의 신조어가

난무하면서 동아일보 지면을 장식한 그 아름다운 ‘광고들’ 박정희 정권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신문의 돈줄인 기업광고를 철회토록 압력을 행사하면서 벌어진 그 사건은 재수생에게도 공분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뜻있는(?) 재수생-나를 포함한-몇몇이 십시일반 용돈을 각출하여 문구도 거창하게 ‘정의의 햇불, 너 동아일보여!’ 하는 식의 격려광고를 내기에 이르렀던 것일세. 지금 생각해 보면 한바탕 웃음으로 추억할 일이지만 당시로서는 무슨 ‘거사’ 하듯 쉬쉬하며 우리끼리 작당하던 기억이 생생하다네.

그 분기탱천하여 벌인 작은 일은 급기야 나의 삶의 진로에 분명하게 각인되게 되었고 대학진학 후 ‘운동권’에 자연스럽게 접목되는 데 일조를 하게 되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네.

아무튼 그런 곡절을 거친 후 대학에 진학한 나는 우연한 기회-글쎄 나로서는 우연이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닌-에 ‘학습’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네. 그러나까 그 이전부터 사용되었고 그 후 오랫동안 ‘스터디 (후일 80년대 후배 학번들은 그마나 줄여서 ‘스터’라고들 하기도 했다)라고 불려진 ‘학습’-이를 공간기관은 ‘의식화 학습’이라 불렀고-그룹에 참가하게 된 것이지.

박정희 정권의 말기였던 당시 대학사회의 분위기는 참으로 암담한 것이었지. 하기가 어디 대학사회만 그랬었나? 국가 전체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었지. 지식인은 곡학이체를 강요당했고, 법조인은 짜여진 각본대로의 판결을 강요당했으며, 노동자는 ‘죽기 살기로 일하고 주는대로만 받기’를 강요당했으며, 언론인은 ‘보고 들은 것은 보도하지 말기’를 강요당하는 등 나라 전체가 오로지 박정희 개인을 향한 일편단심과 그 정권의 안위만을 위한 도구로 전략하기를 강요받던 처절한 시기가 아니었나?

나중에 80년대 후배들에게는 도저히 설명할 길도 없을 만큼 암흑했던 대학사회의 풍경-80년대 후배들에게 그런 당시의 정황을 얘기할라치면 ‘대체 저 선배들은 불과 수년 전의 얘기를 마치 원시시대 회상하듯 한다’는 표정으로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몸짓을 하곤 했었다네-을 자네도 기억할걸세.

‘민주주의’라는 말은 금기였으며 ‘민족’이라는 단어는 불온시되었고 ‘민중’이라는 말은 용공이 되던 그런 상황이었지. 공공연한 장소에서 그 세 단어 중 어느 하나가 튀어 나올라치면 말을 한 사람도 듣는 사람도 무심결에 좌우를 둘러봐야 하던 그런 시절이었지. 소위 ‘막걸

리 반공법’이라는 웃지 못할 ‘반국가사범’이 대량생산되던 그런 시대가 바로 70년대 말, 박정희 정권의 말기 모습이었지.

그런 상황에서 패거리가 모여 ‘학습’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소탕’의 대상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일이었던 만큼 우리-나와 학과 몇몇 동기들-일당은 조심에 조심을 거듭하는 ‘암약’의 일원이었지. 그러나 지하세계에 잠복한 우리는 그 학습을 통해 철학, 역사, 경제학, 그리고 문학을 공부했고 시대의 암울한 상황을 깨치는 즐거움을 만끽했고 그 극복을 위한 나름의 결의를 다지곤 했다네.

그러던 이듬해 2학년이 접어들면서 4월이 되자 나라 전체는 박정희 정권의 국내적 폭압에 더하여 일본과의 대륙붕 분쟁이라는 외교적 사건을 겪게 되었지. 이즈음의 ‘독도분쟁’ 과도 비견될 수 있는 외교적 마찰이었지. 동해상의 석유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대륙붕 개발을 둘러싸고 한일 간에 영역 다툼이 벌어진 것이지.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일본의 억지 주장에 꼬리를 감추는 듯하는 굴욕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치솟게 되었어.

내가 인생의 한 전환을 이루게 되는 ‘운동의 실천’을 경험하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도 거기에 연유했다네. 물론 대륙붕 굴욕외교라는 외양은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였고 이면에는 민주주의 압살, 반민족적 분단고착화,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피폐한 삶을 초래한 박정희 유신정권에 대한 저항의 몸부림을 담은 유인물을 제작하여 교정에서 학우들을 상대로 ‘살포’하는 ‘거사’-부끄럽게도 시위를 선도하는 행위도 아니었고 단지 유인물 배포를 통한 선동에 불과한 것이었지만-를 하게 된 것이지. 나의 첫 번째 감옥 경험은 그렇게 하게 되었다네.

지난 삶에 있어서 모두 세 차례의 유사경험을 하였지만 난 아무래도 20대 초반에 겪은 그 감옥체험이야말로 내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이자 심지어는 내 성격 변모의 근본토대가 되었음을 거듭 말하지 않을 수 없다네.

흔히들 우리가 ‘뺨잡이’라고 일컫는 감옥 속의 다양한 인생들-폭력, 절도, 강도, 사기, 심지어는 살인에 이르는 범죄 피의자로 혹은 기결수로 복역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가운데 보고, 듣고, 겪은 다양한 일들은 굳이 여기서 재론하지 않으려 하네. 그건 이미 내가 간간히 자네에게 술안주 삼아 이야기하기도 했거니와 자네도 문학작품 등을 통해 익히 알고 접한 내용이니 말일세. 다만, 흉악범이라 알려져 사회적 냉대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곡절 많고 사연 기구한 삶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범죄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었고, 그런 만큼 그들의 내면적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만은 나도 수차 이야기했었던 것 같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세. 내가 감옥생활의 경험을 말하면서 자네가 듣기에 좀 거북한 점이 있더라도 삶의 전환이요 성격 변모의 전기가 되었다고 그럴듯한 단어를 열거한 데는 정말이 유가 있다네.

‘학습’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동료들 그리고 선배들과 사회현실에 대한 꽤 많은 토론을 하면서 거칠게나마 ‘운동의 필연성 및 당위성’에 대한 나름의 근거를 쌓긴 했지만, 대학 2학년 초반의 나이와 ‘무장’으로는 아직 어설픈 ‘운동가’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나 자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네. 그런 점에서 감옥은 내게 새롭고도 박진감 넘치는 배움의 현장이 되고도 남았지.

우선은 많은 선배들과의 만남을 들 수 있다네. 여기서 일일이 그 분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겠지만, 난 그 감옥교실에서 현실적 스승들을 만났던 셈이지. 국내외적으로 이미 유명인사가 된 시인들, 나보다는 훨씬 가열찬 투쟁의 이력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대학의 선배들, 나름대로 시대적 고통에 동참하려던 종교인들, 언론인들, 그리고 정치인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나는 그들의 현신적 자세를 쉽게 배우고 체득할 수 있었다네.

그중에서도 특히 ‘전주교도소’로 이감되어 만나게 된 ‘장기수 선생님’들과의 조우는 한마디로 충격이었어. 대개 20년 혹은 그 이상을 한 평도 되지 않는 감방에 갇혀 지내면서도 그분들은 젊은 시절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겼던 이념적 선택을 버리지 않고 인간 이하의 고난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었어. 아직은 당시의 ‘운동의 현실’로서는 쉽게 적응하기 힘들었던 ‘이념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계기를 거기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네.

사람과의 만남이 그런 실천적 학습의 기회가 되었다면, 다음으로는 ‘책과의 만남’이었어. 자네도 짐작하다시피 감옥에서 남아도는 것은 ‘시간’ 아니겠나? 잠깐의 면회, 운동 시간 등을 제외하면은 오로지 ‘독서’에 열중하는 재미를 만끽했다네. 정말 닥치는 대로 읽고 또 읽는 삼매경에 빠졌다네. 약 15개월에 걸친 수감생활동안 300권 가까운 책을 독파하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된 것도 나에게서는 위안이자 자산이 된 셈이지.

책 이야기를 하면 떠오르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 하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저작으로 유명한 막스 웨버(Max Weber)와 <자본론>의 칼 맑스(Karl Marx)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교도소 도서검열관들이 막스 웨버의 번역본들도 무조건 불허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거지. 웨버의 ‘막스’와 마르크스의 ‘맑스’가 동일인물로 취급된 거라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신들이 이미 한번 내린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는 알량한 자존심으로 끝내 웨버의 저작을 읽을 수 없었지.

이런 새로운 실감나고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나는 비록 얼치기이긴 하지만 ‘투사’로 재생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네. 수감생활이 고통과 좌절을 의미하기 보다는 흥분과 다짐의 시간으로 변할 줄을 어찌 짐작이나 했겠나? 미처 확신하지 못한 가운데 겪게 된 감옥생활은 이처럼 나에게 신천지를 열어 보임으로써 극적인 생의 전환을 확실하게 해주었다네. 새로운 범죄기술을 배운다는 점에서 ‘뺑깡이 들이 감옥을 학교’라고 부르지만 그건 우리들 ‘운동가’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다네.

앞의 이야기에 반해 성격의 일대 변모라는 나의 언명은 좀 이해하기 힘들 걸세. 그건 나 자신만이 또렷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었다네. 난 그때까지 솔직히 까탈스럽고 차가운 성격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잘난 척하고 좀 이기적인 성격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네.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유난을 떨어 친구들과의 사교에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었음에 틀림없었다네.

그런데,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연히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 ‘독서’를 통한 성찰과 교정의 기회를 가지면서 의식적 노력이 보태져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이지. 어울려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나를 조금씩 버리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그건 힘들여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점도 인식하게 되었다네.

재미있는 것은 사색의 나래를 펴나가면서 나는 넓은 교도소 마당을 채우고 있는 비둘기와 참새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는 ‘경지(?)’에까지 나아간 것이라네. 내가 뭐 득도한 수행자였든 아니든 그것은 아니고 심심풀이로 던져준 밥 찌꺼기에 몰려드는 비둘기와 참새를 상대로 나 혼자 중얼거린 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게 자꾸 계속되다 보니 일종의 ‘대화 수준’까지 진행된 것이지. 뭐라구? 그게 곧 정신착란의 일종이라구? 하 하 하. 하기가 굳이 따지고 보면

자네 말따나 그게 그것인 셈이지.

사계절을 두루 경험한 첫 번째 나의 감옥생활은 내게 이런 '유익한' 흔적을 새겼다네. '긴급조치9호'라는 박정희 정권의 악법이 역설적으로 '투사의 산실'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셈이지. 자고로 양의 동서와 시대의 고금을 막론하고 폭압적인 권력은 모든 것을 힘으로 억눌러 자신을 보존하고자 하지만 더 큰 반작용으로 반드시 실패하고야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우지 않았던가? 박정희 정권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던 셈이지. 1979년 10월 그는 권력유지의 최고 최강의 전위대였던 중앙정보부의 수장 손에 의해 명을 다하고 말았으니 그 역시도 그런 역사적 경험을 응변으로 증명한 셈이지.

자네도 알다시피 그 후의 나의 삶의 궤적은 1977년과 78년에 걸친 그 감옥생활의 연장선상에서 그려졌고 오늘에 이르렀네. 물론 그간의 삶에 부끄러운 면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난 나름대로 '올바르고 참되게' 살려고 애써 왔다고 자부하네. 그 구체적인 행로 또한 자네에게 말하고 싶지만 오늘은 밤도 깊었고 하니 다음으로 미루어야겠네.

어떻게? 별 재미도 없는 긴 글을 읽느라 짜증나지나 않나? 하지만 좀 참아주게나. 오래지 않아 다시 편지 하겠네. 소용없는 녀드리가 되기 십상이지만 내게는 나이 선에서 돌아본다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네. 바로 그 점을 자네가 너그라이 이해하고 받아주게나. 늘 자네는 내게 순위 형님 같은 아량으로 날 감싸주지 않았나.

우리도 이제는 건강에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나이가 된 만치 자네도 사업을 꾸려가는 한편으로 운동 게을리하지 말고 조심하게나. 그럼 또 연락합세. 편안한 밤 지내기를 바라며 글을 맺네.

2005년 4월, 깊어가는 어느 봄 밤

1977년 4월 25일 "고대여 너를 안고 통곡한다"



소영진_고려대 행정학과 76학번, 주데이콤, 한국전신원 선임연구원, 대구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현)

1975년, 파시즘의 광풍이 몰아치다

1975년은 유신체제가 절정이자 막바지의 발악을 하던 해였다. 그야말로 광란의 파시즘이 전국을 휘몰아쳤다.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 동아광고탄압 등에도 불구하고 독재에 항거하는 물결이 계속 거세어지자 박정권은 그해 4월 초에 긴급조치7호라는 강권조치로 맞섰다. 4월 말 월남 패망을 빌미로 전국의 학교, 단체들을 관제 반공궐기대회에 동원하더니 1학기 말까지 모든 학교의 학생회를 해산하고 학도호국단으로 바꾸었다. 그 와중에 5월 13일, 그 악명높은 긴급조치의 집대성이라 할 9호가 국민의 입과 손발을 꽂꽂 묶기에 이르렀다.

나는 당시 대입을 앞둔 고3학생으로 학생회장을 맡고 있었다. 우리도 이러한 시국에 대해 무관심할 수만은 없었다. 우리는 <뉴스위크>지에 난 김지하 관련 기사를 돌려 보면서 시국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고, 광고탄압을 받고 있던 동아일보에 성금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으며, 월남 패망 후 반공궐기대회를 주도하라는 학교측의 지시를 끝까지 거부하는 등 나름대로의 민주화 열망을 표현하였다

그 해 여름, 학생회가 강제 해산되고 학도호국단이 발족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고등학교에